

## “극한의 고통에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 ‘백년의 지혜’ 캐롤라인 스톨신저 지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도 여전히 100세를 넘기는 것은 쉽지 않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나약하다.

겸허해야 할 이유를 여기에서 찾는다. 지혜는 유한하고 나약한 인간을 성숙하게 한다. 노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는 말은 경험에서 체득한 ‘생을 바라보는 자세’를 수용하라는 의미다. 여기 한 노인이 있다. 한국 나이로 111세인 그녀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이다. 체코 출신의 알리스 헤르츠쭌머. 그녀는 매일 세 시간씩 바흐, 베토벤, 쇼팽 곡을 외워서 연주한다. 주름이 주글주글하고 검버섯이 많지만 미소는 해맑다. 그녀는 “매일이 기적”이라며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로 노인을 규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그녀에게서 찾는다. 대학살 현장에서 생존했다면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라 단정하기 쉽다. 왜 없었겠는가. 테레진 수용소에서 어머니와 남편, 친구들을 나치에 의해 잃었다. 예술가와 지성인들이 질병과 허기, 고문으로 시달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럼에도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수용소에서 그녀는 비밀리에 어린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재소자들을 위해 100회가 넘는 콘서트를 열었다. 그 낙천성 때문이었을까. 가혹한 운명도 그녀를 비켜갔다.

2차 전쟁 이후 그녀는 두 가지 일에 매달렸다. 배움과 가르침. 히브리어를 배우고 새 삶을 개척하는 한편 피아니스트이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도 런던의 제3기 대학에서 역사와 철학을 공부한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한 세기 이상을 그렇게 살았다. 끝없는 지식에 대한 열정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품위 있는 삶을 살았다. 가진 것이 많아서, 지위가 높아서, 신분이 귀해서, 품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의 삶은 증명한다.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카네기홀에서 연주회를 연 바 있는 피아니스트 캐롤라인 스톨신저가 그녀의 일대기를 토대로 ‘백년의 지혜’를 썼다. 작가는 그녀를, 한 세기를 살아온 생의 철학자로 규정한다.

아마도 그녀가 살아남은 것은 나름의 목적이 있는 듯하다. 악과 맞선 진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면, 후세들은 겸허히 경청해야 할 이유가 있다. 아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도처에서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경제가 어렵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은 갈수록 늘다. 그러나, 언제고 경제가 어렵지 않던 때가 있던가. 그런 이유로 낙담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로 너무도 고귀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갖지 않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가진 것을 기뻐한다고 한다. 긍정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그녀의 ‘백년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자.

“낙천성은 가장 아무든 시간을 버릴 수 있게 하는 힘이다. 비천한 일도 즐기라. 그런 일들이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게 해준다. 우리는 늙어 야만 생의 아름다움을 깨닫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더 많이 알게 된다.”

〈(주)미림출판·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알리스 헤르츠쭌머는 “매일이 기적”이라며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 부딪치는 자, 환기하는 자, 자유를 찾는 자

### ‘정결한 집’

#### 정찬 지음

인간은 절대적 운명 앞에서 한없이 허탈해지고 나약해진다. 그렇다고 운명에 함몰되지 않는다. 차라리 귀도 이탈을 선택한다.

정찬의 일곱 번째 소설집 ‘정결한 집’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그렇다.

그간 세계의 불온한 질서를 진지하게 파헤쳐왔던 작가는 이번에도 불가해한 세상에 대한 이면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여덟 편의 소설은 각기 ‘운명’에 연루된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로 부딪치는 자, 환기하는 자, 자유를 찾는 자로 수렴된다.

해설을 쓴 김대산 씨는 “정찬의 소설들에서 ‘인간’에 대한 문제는 사라진 문제거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의미심장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문



제”라며 ‘인간’을 둘러싼 운명의 다의성을 말한다.

즉, 운명의 일회적 측면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흔들의자’와 같은 작품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신화-종교와 병치시켜 부조리의 원류를 추적하기도 하며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에서는 상황의 충격을 되살리고 공유했으로써 지난한 운명이 함께 짊어져야 하는 문제임을 환기한다.

“그동안 소설가로서 등의 무게를 힘겨워하는 노새처럼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그럼에도 씹어 씹어 씹어온 것은 아마도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갈증을 가시게 하는 샘물이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작가는 여전히 운명을 통해 희망을 노래한다. 여전히 그의 작품이 기대되는 이유다. 〈문학과학사·1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삶이 내재하고 있는 의미의 다양성

### ‘아름다운 도둑’

#### 신덕룡 지음

90년대 중반 이후 시와 생태학의 연관을 중심으로 생명시론을 써온 신덕룡(경주대학교 문예창작과)교수가 세 번째 시집 ‘아름다운 도둑’을 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아름다운 도둑’이라니, 과연 도둑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시인답은 발상이다. 모순형용사다. 표제시를 포함한 46편의 시는 개별적인 삶이 내재하고 있는 의미의 다양성을 포착한다.

“—언제든 내게로 와서/ 가져갈 게 있다면 더욱 좋겠다.”(‘아름다운 도둑’ 중에서) 냇가에 앉아 있는 화자는, 소금쟁이의 소리 없는 다녀감을 그렇게 노래한다. 흔적마저 남지 않는 짧은 스냅이지만 화자의 내면엔



잔잔한 울림이 남는다. 도둑이었으며 그 무엇도 훔치지 않았으므로 도둑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가져갈 게 있다면 더욱 좋겠다”고 고백한다.

해설을 쓴 권혁웅 시인은 “흔적은 마음의 길이다. 마음은 모습을 드러낼 수 없고 몸이 지나간 자리에서 간신히 제 흔적을 보일 뿐이다. 흘러가는 물위에 남긴 발자국처럼.”이라며 ‘아름다운 도둑’의 상징성을 따스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시인은 시를 쓰는 이유에 대해 “내가 아는 사람들은 너나없이 외로운 존재라는 걸 그저 즐겨야 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라며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다.

〈서정시학·9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지속가능한 내일에 대한 고민

### ‘되살린 미래’

#### 아름다운가게·이승은 지음

자본에 기댄 경제성장기 멈춰 섰다. 한국은행과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전망한 2013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퍼센트다. 바야흐로 저성장시대다.

지속가능한 삶을 꿈꾸는 생활혁명가들의 유풀한 반란을 들려주는 책 ‘되살린 미래’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기록이다. 책은 ‘장사하는’ 비영리 공익재단 아름다운가게와 20년간 책을 만들어온 출판사 이승은이 함께 썼다.



아름다운 가게는 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내일을 고민하며 창의적인 도전으로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열정가들을 소개한

다.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중인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을 통해 위기를 뛰어넘을 전혀 새로운 해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책에서는 이들을 ‘생활혁명가’라 명명하고 있다.

〈생각정원·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작고 아늑한 서재를 꿈꾼다

### ‘마음의 서재’

#### 정여를 엮음

이제는 식상해 질 정도로 ‘인문학 붐’, ‘인문학 부흥’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졌다. 서점에는 ‘문사철’ 책이 풍부하고, 경제나 과학 분야에서도 인문학이 화두로 등장한다.

실용과는 거리가 먼 ‘인문학’은 대체 무엇 때문에 필요하게 된 걸까.

문학평론가 정여를이 쓴 인문학 에세이 ‘마음의 서재’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책에 대한 기록이다. 저자는 식상한 추천도서 목록을 들어밀지 않는다. 중요한 건 ‘중



은 책’ 자체가 아니라 그런 책을 읽고 싶다는 마음과 책을 고르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집 ‘거실’의 책장’과 ‘마음의 서재’를 일치시키는 것이 내 공부의 최종 미션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거대한 책더미 속에 파묻혀 길을 잃기보다는, 내 마음의 빛깔과 소리에 따라 언제든지 끌려갈 수 있는 좀 더 작고 아늑한 내 마음의 서재를 꿈꾼다.”는 저자의 마음이다. 〈천년의 상상·1만6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이론이 곧 경제학 역사

### ‘세상을 바꾼 경제학’

#### 아자와 사이언스 연구소 엮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현대 경제학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경제를 공부하는 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와 그 이론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1982년에 설립된 일본 과학정보 그룹 ‘아자와 사이언스 연구소’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 현장과 업적을 엮은 ‘세상을 바꾼 경제학’을 출간했다.

책은 45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중에서도 최근 30년 동안 가장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한 석학 11명을 선정, 경제학이 현실 세계에 미친 영향과 세상을 바꾼 이론의 탄생 배경을 함께 탐구하



고 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 존 내쉬(1994년 수상),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데니얼 카너먼(2002년),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후생경제학을 연구했던 아시아 최초의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1998년),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주장했던 제임스 토빈(1981), 아시아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폴 크루그먼(2008년) 등 경제학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한 세계적 석학들의 이론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로버트 솔로(1987), 버논 스미스(2002년), 데니얼 카너먼의 인터뷰를 실어 그들의 참모습을 보다 진솔하게 전달한다.

〈김영사·1만30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신간

▲나에게 더 미안해지기 전에=김창완, 헤민스님, 김난도, 백지연, 유홍준, 김경운, 한비아, 박경철... 청춘멘토로 자리잡은 21명의 인사들을 직접 만나 현실적인 고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유용한 해결책과 조언을 들려준다. 학업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확산도 서지 않는다는 청년 인터뷰에게 전 국민의 힐링멘토 헤민스님은 이렇게 조언한다. “이세상에 100% 확신은 없는 거 같아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선택이면 뒤에 가서 바꾸면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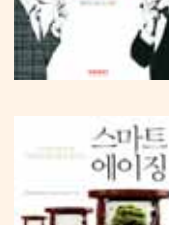
▲손정의의 선택=단 2명의 직원으로 출발한 소프트뱅크를 30여년 만에 800개의 계열사, 매출 40조 원대의 세계적 그룹으로 성장시킨 손정의의 회장. 그는 ‘의사결정의 힘’에서 리더의 조건이 결정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손 회장이 직접 창안한 경영전략인 ‘손의 제곱법’을 기준으로, 리더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의사결정의 비법을 제시하고 있다. 〈소프트뱅크·1만2000원〉

▲길모퉁이 카페=지금껏 고인이 된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 프랑수아즈 사강, 프랑스 문단의 작은 악마, 섬세한 심리 묘사의 대가, 스캔들 메이커 등 그녀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수도 없이 많다.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독자층과 강렬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하다. 단편소설 열아홉편을 모은 ‘길모퉁이 카페’는 국내에는 처음 소개되는 사강 단편집이다.

▲열정과 헌신=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영국의 마거릿 대처,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 그리고 한국의 박근혜. 한국미래예측연구소 노병환 소장이 세계 여성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정치권에 등장해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연구했다. 저자는 그들을 ‘국운을 이끌고 세계를 움직이는 마법’을 가진 여걸들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표창원, 보스의 품격=대한민국 경찰화 박사 1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강진 출신인 구영식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기자가 함께 펴냈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경찰대 교수직을 사퇴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책에서 그는 대선에서 패배한 48%의 국민들에게 박근혜 정부 5년을 유풀하고 의미있게 살아가는 법을 제안한다.

▲스마트 에이징=우리가 정말 100세까지 산다면 늘어난 인생을 누구와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할까? 더 이상 월급 날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은퇴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무런 계획 없이 파자마 차림으로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면서 지내는데는 노후가 너무 길다. 그렇다고 매일 여행과 레저를 즐기다가는 순간에 노후자금이 바닥나기 십하다. 〈청림출판사·1만5000원〉



▲컴퓨터 속으로 들어간 도깨비=4~7세 어린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유아게임종류 예방 동화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친근한 그림을 통해 왜 오랫동안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임에 매달리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고 유아들이 스스로 정한 약속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북갤러리·1만원〉

▲우리도 친구가 될 수 있어=자폐 소년 다니엘이 들려주는 자폐 아이와 친구가 되는 법을 담은 이야기다. 다니엘은 자기처럼 자폐를 지닌 아이들도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좋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다. 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폐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특성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이해를 구한다. 〈그래미아기·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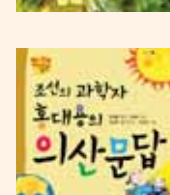
▲로마=전 세계에 잘 알려진 여행 안내서 시리즈 주니어 톨리플래닛(Lonely planet) 로마·파리·뉴욕·런던 편이 나왔다. 배낭 여행자들에게 가장 있는 있는 여행 안내서이기도 하다.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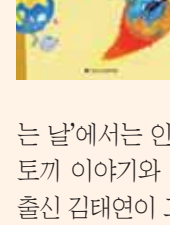
## 어린이 책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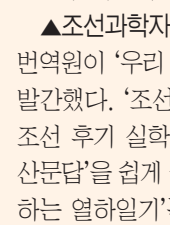
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흥미로운 도시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는 책으로, 알차고 풍성한 정보를 가득 담고 있다. 〈시공주니어·권당 9000원〉



▲별아기의 여행=아동문학가 이원수 선생의 단편 동화집이다. 1950년대와 1970년대 사이에 발표된 8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표제작인 ‘별 아기의 여행’에는 별나라에서 온 아이가 등장하고, ‘손님



는 날’에서는 인류의 달 착륙이라는 사건을 달 토끼 이야기와 결합하기도 했다. 그림은 광주 출신 김태연이 그렸다. 〈현복스·1만1000원〉



▲조선과학자 흥대용의 의산문답=한국고전번역원 ‘우리 고전 재미있게 읽기’ 시리즈를 발간했다. ‘조선과학자 흥대용의 의산문답’은 조선 후기 실학자 흥대용의 과학사상서인 ‘의산문답’을 쉽게 풀어냈다. ‘장복이, 창대와 함께 하는 열하일기’는 미천한 신분의 장복과 창대의 눈을 빌려 조선에서 출발해 청나라 황제의 생일잔치가 열리는 열하까지의 여정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한국고전번역원·권당 8000원〉